

하코다테시 도이초에서 발생한 정어리 등의 집단 폐사에 관한 해외 보도에 대하여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도이초에 정어리와 고등어의 사체가 대량으로 뒤덮이게 된 원인에 대해, 해외 일부 매체가 알프스(ALPS) 처리수와의 관련성을 연상시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번 현상에 대해 지방독립행정법인 홋카이도립 종합연구기구 수산연구본부 하코다테 수산시험장에서는 '물고기들이 저수온대에 진입하거나, 돌고래 등에 쫓겨 밀려왔을 가능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수산청에서는 '수산청은 주로 물고기를, 환경성은 주로 해수를 포함한 삼중수소 함유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어느 쪽 결과 모두 검출한계치 미만이며, 이와 같은 해안 집단 폐사 사례는 과거에도 각지에서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내에서는 알프스 처리수 방출 전부터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보도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건의 중입니다.

또한 외무성에서는 재영일본대사관을 통해, 보도를 실시한 매체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지 않고 마치 정어리 류의 집단 폐사와 알프스 처리수 방출이 연관된 듯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홋카이도청에서는 국내외에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